

한국판 대인관계 문제 척도(K-IIP)의 개발 : 요인구조 및 심리측정적 특성

김정욱 권석만 정남운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가톨릭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심리상담을 원하는 내담자들의 주요한 호소문제인 대인관계 문제를 평가할 수 있는 대인관계 문제 척도(IIP: Horowitz et al., 1988)의 한국판을 개발하고 그 심리측정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서 IIP를 번안하여 259명의 대학생에게 실시한 결과, 높은 내적 일치도와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보였다. 요인분석 결과, 대인관계 문제를 구성하는 7개의 요인구조가 발견되었다. 또한 K-IIP의 총점과 요인점수를 간이정신진단검사, 대인관계 형용사 척도, NEO-인성검사 점수와 비교하여 상관분석을 한 결과, K-IIP는 신뢰할 만한 타당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한국판 대인관계 문제 척도(K-IIP)의 이론적 함의와 활용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대인관계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인간은 대인관계를 통하여 성장하고 발달해 가며 삶의 의미를 찾는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원활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여러가지 어려움과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실제 상담장면에서 대인관계 문제는 내담자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보고하는 주호소

중의 하나이다(Horowitz, 1996; Horowitz & Vitkus, 1986). 상담 장면에서는 오래전부터 대인관계 문제가 중요한 주제로 주목받아 왔다. 그러나 그 임상적인 중요성에 비해서 대인관계 문제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무엇보다도 대인관계 문제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적절한 척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문제를 객관적이고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척도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대인관계 문제 척도(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이하에서는 IIP로 약칭함)의 한국판을 개발하고 그 심리측정적 특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IIP는 Horowitz, Rosenberg, Baer, Ureño 및 Villaseñor(1988)가 대인관계 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자기보고형 검사로서 1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신뢰도와 타당도가 널리 입증되어 왔다. IIP의 개발을 위한 선행연구에서 Horowitz(1979)는 대인관계 문제들을 확인하기 위해, 외래 심리치료 환자들의 접수면접을 녹화하였다. 두 명의 관찰자들이 “나는 ... 할 수 없어”, “나는 ... 해야 돼”라는 식의 환자들의 진술을 기록하였으며, 여기서 총 192개의 진술들이 도출되었다. 그 다음 14명의 평가자들이 진술된 문제들이 대인관계 문제인지 아닌지를 평가하여, 13명 이상이 대인관계 문제라고 평가한 문항들만 남겼다. 그 결과 총 127문항이 대인관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반영하는 진술로 최종적으로 선택되었으며, 이들 진술들이 IIP를 구성하는 문항이 되었다.

Horowitz 등(1988)은 역동적 심리치료를 받으려고 하는 내담자 103명의 표본에 대한 IIP의 심리측정적 특성들을 조사하였다. 이들은 심리치료를 받으려는 내담자에게 10주간의 대기기간 전후로 두 번에 걸쳐 IIP를 실시하였다. 이들은 수집된 IIP 자료에 대해 주성분 분석과 베리막스 회전을 실시하여 6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이들 각 요인에 대해 요인부하량이 높은 문항들을 모아서 비주장성, 비사교성, 비친밀성, 비순종성, 과책임성, 과통제성의 6개의 하위 척도를 구성하였다. 이 척도들은 모두 높은 내적 합치도와 타당도를 보였다. 또한 이들은 IIP가 심리치료시 내담자의 임상적인 변화를 민감하

게 반영하는 척도임을 증명하였다. 이후 IIP는 애착 문제, 심리장애, 심리치료효과 등을 연구하는데 다양하게 적용되어 왔다.

또한 Alden, Wiggins 및 Pincus(1990)는 IIP를 바탕으로 원형구조를 가진 IIP-Circumplex(IIP-C)를 개발하였다. IIP-C는 IIP 127 문항 중에서 추출된 64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들을 지배(dominance) 및 친애(nurturance)의 두 직교차원에서 원형으로 배열하여 구성된다. 원형구조를 따라 8분원에 해당하는 8개의 하위척도가 구성되며, 각 척도에 8문항씩 포함되어 있다. 8개 하위척도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72~.85사이로 비교적 높았고, 하위척도의 타당도를 지지하는 증거들이 제시되었다.

최근 Pilkonis, Kim, Proietti 및 Barkham(1996)은 IIP로부터 성격장애 환자의 대인관계 문제특성을 반영하는 5개의 하위척도를 구성하였다. 이중 대인예민성, 대인양가성, 공격성 척도는 B군 성격장애를 잘 반영하며, 사회적 인정욕구와 사교성 부족 척도는 C군 성격장애를 잘 반영하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Kim, Pilkonis 및 Barkham(1997)은 이 척도를 이용해서 일반적인 성격장애를 반영하는 하나의 잠재적인 구성개념이 존재함을 증명하였다. 즉, 만성적인 대인관계 어려움이 성격장애를 표시해주는 좋은 지표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대인관계 어려움이 종종 애착과 자율성간의 부조화로 드러난다고 주장하였다.

Barkham, Hardy 및 Startup(1994)은 Horowitz 등(1988)의 연구의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영국에서 IIP의 요인구조를 탐색하고 타당화 작업을 하였다. 그들이 지적한 Horowitz 등(1988)의 연구의 문제점은 첫째, 연구에서 사용한 피험자들의 수가 문항의 수보다 더 작았다는 것이며, 둘째는 피험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86%로 성별 불균형이 너무 심하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셋째는 연구에서 요인을 추출하는 기준으로서 고유치를 너무 높게 정함으로써 지나치게 적은 요인수를 추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Barkham 등(1994)은 이러한 방법론적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 탐색적인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비주장성, 비사교성, 비지지성, 과배려성, 과의존성, 과공격성, 비판여성, 과개방성의 8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한국인의 대인관계 문제를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한국판 대인관계 문제척도(Korean version of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이하에서 K-IIP로 약칭함)를 개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K-IIP의 심리측정적 특성을 조사하고 요인구조를 탐색함으로써 한국인이 주로 나타내는 대인관계 문제의 하위 요인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최대 우도법(Maximum-Likelihood)으로 요인을 추출하고 베리막스 회전을 실시하였다. 선행 연구들이 주로 주성분 분석을 통해 요인을 추출하였으나 주성분 분석의 경우 개별 검사가 독특하게 변량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점을 지니므로 사용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새로운 표본 집단에서 탐색적인 방법을 통해 K-IIP의 요인구조를 결정하는데 의의가 있다.

둘째, K-IIP 전체점수 및 그 하위척도들이 한국인들의 대인관계 문제들을 잘 나타내주는지 그 타당도를 검증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K-IIP가 심리장애를 평가하는 간이정신진단검사 및 대인관계 성격특성들을 평가하는 대인관계 형용사 척도 및 NEO-인성검사와 어떤 관련성을 지니고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K-IIP로 측정된 대인관계 문제들이 심

리장애를 평가하는 간이정신진단검사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IIP를 개발하고 타당화한 선행연구들이 주로 간이정신진단검사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K-IIP와 간이정신진단검사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K-IIP의 타당도를 검증하는 동시에 본 연구의 결과를 선행 연구결과와 비교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준다.

다음으로, 대인관계 문제행동을 평가하는 K-IIP가 대인관계 성향(disposition)들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대인관계 형용사 척도 및 NEO-인성검사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K-IIP의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검토하였다. 이전 연구들에서 부분적으로 IIP와 고독감이나 의존성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기는 하였으나, 포괄적인 대인관계 성향과의 관련성을 검토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먼저 대인관계의 특성을 원형구조로 측정하기 위해 Wiggins(1994)가 개발한 대인관계 형용사 척도(Interpersonal Adjective Scales; 이하에서 IAS로 약칭함)와의 비교를 통해 K-IIP의 타당도를 살펴보았다. Leary(1957) 이후 대인관계 이론가들은 대인관계 성향을 나타내는 적절한 구조 모형은 이차원의 원형구조라고 인식해왔다. 즉 변인들이 지배(dominance)와 친애(nurturance)의 두 직교축을 따라 원형으로 배열된다고 보았다(예를 들면, Benjamin, 1974; Kiesler, 1983; Lorr & McNair, 1963; Wiggins, 1979). 이러한 전통에서 대인관계 특성을 평가하는 대인관계 형용사 척도는 원형구조를 가장 잘 반영하는 척도로 알려져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 문제 하위 척도들이 대인관계 성격특성과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를 살펴봄으로써 그 타당도를 입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인간의 기본적인 성격특성을 발견하려

는 5요인 성격모형 전통에서 개발된 NEO 인성 검사(NEO-PI)와 비교를 통해 K-IIP의 타당도를 살펴보았다. McCrae와 Costa(1989)는 성격심리학내의 성격특성 연구전통과 대인관계 이론 모형을 결합하려는 접근에서, "5요인 모형이 대인관계 원형구조를 해석할 수 있는 전반적인 체계를 제공해주며, 그 중에서 외향성(extraversion)과 친화성(agreeableness) 요인이 대인관계 원의 지배와 친애 축에 각각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Trapnell과 Wiggins(1990)는 외향성 요인과 친화성 요인이 대인관계 이론 모형의 기본차원인 지배 차원과 친애 차원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NEO-PI의 외향성과 친화성이 대인관계 문제를 반영한다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두 요인이 대인관계문제 척도들과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발표하기에 앞서서, 국내에서 IIP를 타당화하는 선행연구가 발표되었다. 홍상항과 김영환(1999)은 IIP를 표준화하면서, 고유치의 근거는 밝히지 않았으나 6-8개의 요인이 적절하다는 예비 결론을 내린 다음, 각 요인별로 부하량이 .30이상인 문항들을 모아서 그 일관성을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6개의 요인수를 결정하였다. 추출된 요인을 바탕으로 비주장성, 과공격성, 비사회성, 과배려, 비관여, 과개방 하위척도를 구성하고, 이들 척도들을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 UCLA 고독감 척도, Rathus 주장성 척도, 대인관계 의존검사와 비교함으로써 그 타당도를 입증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본 연구와는 독립적으로 진행되었으며, IIP의 번안내용에서는 서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두 연구의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한국에서 IIP가 어떤 요인구조를 안정적으로 나타내는지 검토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IIP가 전반적

인 대인관계 성격특성과 어떤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 살펴본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는 다른 의의를 지닌다.

요컨대, 본 연구의 목적은 IIP를 번안하여 한국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한국판 대인관계 문제척도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K-IIP의 심리측정적 특성을 조사하고 아울러 요인구조를 탐색함으로써 한국인이 나타내는 대인관계 문제의 하위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방 법

1. 피험자

피험자는 서울시내 한 대학교에서 계절학기 기간에 '인간관계의 심리학' 과목을 수강하는 259명의 대학생이었다. 이 중에서 남자는 175명, 여자는 84명이었다. 평균 연령은 21.16세(표준편차 2.08)이며, 학년은 1~4학년까지 고루 분포되어 있었다.

2. 측정도구

1) 대인관계 문제 척도(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IIP)

Horowitz 등(1988)이 대인관계 문제행동을 보다 용이하고 포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개발한 자기보고형 질문지를 본 연구자들이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연구자들이 1차로 번역을 하고, 두 명의 이중언어 사용자가 검토를 한 후, 연구자들이 최종적으로 번역을 완성하였다.

이 척도는 총 1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리치료를 받으러오는 내담자들이 가장 흔히 자신들의 문제를 표현하는 방식에 맞추어서 질문이 이루어져있다. 질문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전반부는 '나에게는 ... 하기 어렵다'는 형태의 78문항이 제시되며, 후반부는 '나는 ... 을 너무 많이 한다'는 형태의 49문항이 제시되어 있다. 내담자는 이 문항들에 대해서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0점-4점 사이에서 표시하게 되어있다.

2) 간이정신진단검사(Symptom Checklists-90-Revision; SCL-90-R)

Derogatis(1977)에 의해 개발되고, 김광일, 김재환 및 원호택(1984)이 표준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증상을 표시하는 9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90개의 증상 각각에 대해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는지 그 정도를 0-4점 척도상에 표시한다. 9개의 하위 척도와 현재 장애의 심각도를 나타내는 전체심도지수(Global Severity Index)로 이루어진다. 9개의 하위척도는 신체화, 강박증, 대인예민성, 우울,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이다.

3) 대인관계 형용사 척도(Interpersonal Adjective Scales; IAS)

Wiggins(1979)는 특성을 기술하는 용어 분류체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기질이나 기분과는 다른 범주로 대인관계 특성들을 따로 구분짓는 시도를 지속해왔다. 그래서 먼저 128문항의 척도를 만들었고, 이후 그 구조적 특성을 개선하여 64문항의 보다 편리한 단축형으로 만든 것이 현재의 IAS이다(Wiggins, Trapnell & Phillips, 1988; Wiggins, 1994). 본 연구에서는 권석만과 김정옥(인쇄중)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IAS는 64개의 형용사로 구성된다. 이 형용사들은 8분원에 해당하는 8개의 하위척도에 각각 8개씩 포함된다. 8개의 하위척도는 '자신있는-

지배적인(Assured-Dominant)', '거만한-계산적인(Arrogant-Caculated)', '냉담한(Cold-Hearted)', '고립된-내향적인(Aloof-Introverted)', '자신없는-순종적인(Unassured-Submissive)', '겸손한-솔직한(Unassuming-Ingenuous)', '따뜻한-친화적인(Warm-Agreeable)', '사교적인-외향적인(Gregarious-Extraverted)'으로 구성된다. 각 피검자는 각 문항이 얼마나 자신을 정확하게 기술하는지에 대해 8점 리커트 척도상에 평정하게 된다. IAS는 여러 가지 대인관계 측정치들 중에서 현재까지 원형구조를 가장 잘 구성하는 척도로 평가되고 있다.

4) NEO 인성 검사(NEO-Personality Inventory; NEO-PI)

Costa와 McCrae(1992)가 인간의 성격을 계층적 구조로 설명하는 '5개 요인구조'와 그 하위요인 구조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검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안창규와 이경임(1997)이 국내에서 타당화한 검사중에서, 외향성(Extraversion)과 친화성(Agreeableness) 요인을 사용하였다. 외향성 요인은 온정성(warmth), 사교성(gregariousness), 주장성(assertiveness), 활동성(activity), 자극추구성(excitement-seeking), 긍정적 정서(positive emotions)의 하위 요인으로 이루어지며, 친화성 요인은 신뢰성(trust), 솔직성(straightforwardness), 이타성(altruism), 순응성(compliance), 겸손(modesty), 동정(tender-mindedness)으로 이루어진다.

결 과

K-IIP는 다양한 대인관계 문제를 기술한 총 127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검자로 하여금 자신이 이러한 문제로 얼마나 어려움을 겪

고 있는지 그 정도를 Likert 5점척도(0~4점)상에서 평정하게 한다. K-IIP의 각 문항에 대해서 259명의 한국대학생이 나타낸 평균점수는 .59~1.99의 범위에 속하였다. 평균점수가 높은 상위 5개 문항은 '다른 사람에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다'(1.99),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반응이 어떤지 너무 많이 염려한다'(1.97),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고 내 주장을 하기가 어렵다'(1.95), '거절당하는 것에 대해 너무 예민하다'(1.86), '비판에 대해 지나치게 예민하다'(1.85)이었다. 반대로, 평균점수가 낮은 하위 5개 문항은 '무슨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은 대체로 내가 결정해 주기를 바라는 편이다'(.57), '어떤 사람이 싫으면 쉽게 싫다고 표현한다'(.58), '나는 늘 부지런하고 바쁘게 지낸다'(.59), '대화를 나눌 때 대체로 내가 말을 많이 하는 편이다'(.65),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기보다는 내 방식대로 혼자 하는 것이 좋다'(.70)이었다. 대체로 주장성의 문제와 거절이나 비판에 대한 예민성의 문제에 대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

한편, K-IIP 전체점수는 대인관계 문제로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 심각도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K-IIP 전체점수는 피검자들의 척도상의 총점수를 총 문항수 127로 나눈 전체평균점수이다. 그 결과, K-IIP 전체점수의 평균은 1.16, 표준편차는 .58로 나타났으며, 점수범위는 0~2.82점 사이였다. 이 점수는 본 표본의 피검자들이 대인관계 문제상에서 약간의 어려움만을 보고했음을 의미한다. 반면, SCL-90-R의 전체심도지수는 평균 .85, 표준편차 .60, 점수범위는 0~3.67이었다. 이 결과는 대인관계 문제로 인한 불편감이 기타 증상으로 인한 불편감보다 상대적으로 높음을 보여준다. Horowitz 등(1988)은 두 평균수치간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대인관계로 인한 고통이 심한 사람을 찾을 수 있고, 그래서 단기역동 치료에 의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 K-IIP의 요인 구조

한국인을 대상으로 K-IIP를 실시하여 그 요인구조를 파악함으로써 대인관계 문제의 하위 요인들의 분포를 보고자 하였다. 259명의 피검자들에게 K-IIP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먼저, 최대우도법으로 요인을 추출한 다음 자료를 회전하지 않고 모든 문항에 정적인 부하를 지니는 제 1요인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회전하지 않은 첫 요인이 35.98의 고유치를 가지며, 변량의 28.3%를 설명하였다. 이 요인이 Horowitz 등(1988)의 연구에서처럼, K-IIP의 모든 문항들에 대해 정적인 부하량을 지니므로 대인관계 문제의 '일반적인 불편감' 요인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K-IIP 요인구조를 결정하기 위해서, 수집된 자료에 대해 최대 우도법(Maximum-Likelihood)으로 요인을 추출한 다음, 베리막스(varimax) 방식에 의한 회전을 실시하였다. 고유치 2이상의 요인을 고려하여 요인구조를 탐색하였고, 대인관계 문제를 가장 해석가능한 형태로 구성하는 요인구조를 탐색하였다. 그래서 먼저 고유치가 2이상인 것과 고유치의 하락을 고려하는 스크리(scree) 검사를 근거로 볼 때, 요인의 수가 6-9개가 적절하다는 예비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그래서 요인의 수를 각각 6-9로 지정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각 요인별로 부하량이 .35이상인 문항들을 모아서 문항 내용의 일관성을 고려하였다. 그 결과 요인의 수가 7개일 때, 각 요인에 포함된 문항이 동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되고, 요인들이 대인관계문

제의 중요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고, 서로 다른 대인관계 문제를 다양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7개 요인들은 고유치가 2.48 이상이며, 이들 요인들이 변량의

48.3%를 설명하였다. 이들 7개 요인들을 바탕으로 7개의 하위척도를 구성하였는데, 이들 하위척도들에 포함된 문항은 전체 127문항중 110문항이었다. 다음으로 표 1에는 K-IIP의 요인분석

표 1. K-IIP의 요인구조.

	요인 1 대인예민성	요인 2 비사교성	요인 3 비주장성	요인 4 비판/의심	요인 5 과배려	요인 6 성적회피	요인 7 성마름/짜증
문항	106	10	8	90	53	70	112
번호	108	23	9	52	101	59	82
	110	28	32	37	68	44	79
	84	3	20	111	73	34	35
	80	27	33	96	126		
	114	42	2	64	120		
	87	118	41	62	97		
	123	99	6	117	104		
	95	105	22	127	81		
	93	124	74	107	58		
	122	31	16	102			
	109	45	71	115			
	98	7	14	92			
	91	78	36	116			
	121	46	69	89			
	100	39	51	40			
	83	67	24	61			
	113	29	5	75			
	88	60	25	72			
	85	125	26	63			
	86	11	17				
	94	1	30				
		43	21				
		119					
고유치	36.0	6.7	6.1	4.0	3.2	2.9	2.5
변량	28.3	5.2	4.8	3.2	2.5	2.3	1.9
설명비율							

결과, 요인의 명칭; 문항번호 및 고유치와 변량 설명비율에 대해 제시하였다.

제 1요인은 모두 22문항이며, '다른 사람의 반응에 대한 염려'와 '인정욕구', '지나친 의존성'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대인 예민성" 요인이라고 명명하였다. 제 2 요인은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 어려움'과 '거리두기'를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비사교성" 요인이라고 명명하였다. 제 3요인은 '아니라고 말하기 어려움', '자기 주장을 하기 어려움'을 측정하고 있어서 "비주장성" 요인이라고 명명하였다. 제 4 요인은 '비판', '의심', '보복', '이용가능성' 등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서, "비판/의심"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제 5요인은 '다른 사람에게 너무 관대'하거나 '다른 사람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것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며, 그래서 "과배려"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제 6 요인은 선행 연구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요인으로, '성적인 감정을 경험하기 어려운 것'을 측정하고 있다. 그래서 "성적 회피"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마지막 제 7요인은 '너무 쉽게 흥분하거나 짜증내는' 것을 측정하고 있어서 "성마름/짜증"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요인분석 결과를 선행 연구 결과들과 비교해보면, 주된 요인들은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몇 가지 점에서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먼저, 본 연구결과를 Horowitz 등(1988), Barkham 등(1994), 및 홍상황과 김영환(1999)의 연구 결과와 비교해볼 때, 비사교성, 비주장성, 과배려 요인이 공통적으로 발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문화적인 차이와 관계없이 발견되는 대인관계 문제의 안정된 하위유형임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와 다른 본 연구의 특징으로는, 우선 '성적 회피' 요인이 새롭게 추출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성적인 영역에서 아직은 우리 나라가 서구문화에 비해 어려움이 더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비판/의심 요인과 성마름/짜증 요인이 도출되었는데, 이 요인들은 선행연구의 과공격성 요인이 세분화되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선행연구들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비친밀성'이나 '비참여' 또는 '과개방' 요인이 본 연구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요인들이 본 연구에서는 '대인예민성 요인' 및 '비사교성' 요인으로 포함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2. K-IIP의 전체점수 및 하위척도 점수의 신뢰도

요인분석을 통해 얻은 7개의 요인들로부터 7개의 하위척도를 구성하였다. 이때 요인 부하량 .35를 기준으로 사용하여, 부하량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문항은 해당 척도에서 제외시켰다. 총 문항 중에서 부하량이 .35를 넘은 문항수는 110문항이었다. K-IIP 하위척도들간 상관은 .39~.72 사이이었다. 표 2에는 K-IIP 척도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와 신뢰도 자료가 제시되어 있다.

K-IIP의 전체척도의 내적합치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산출한 Cronbach의 알파계수는 .98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Barkham 등(1994)의 연구에서는 알파계수가 .96이었으며, 홍상황과 김영환(1999)의 연구에서는 .95로 나타났다. 또한 106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10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K-IIP 전체점수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7로 나타났다. Horowitz 등(1988)의 연구에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98이었다. 이 결과는 K-IIP가 비교적 동질적인 내용을 측정하며, 시간적으로 안정적

표 2. K-IIP 척도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신뢰도(n=259)

K-IIP 척도	평균	표준편차	Cronbach α	검사-재검사 신뢰도
전체 점수	1.16	.58	.98 (n=218)	.87 (n= 82)
대인예민성	1.44	.74	.94 (n=254)	.81 (n=104)
비사교성	.99	.69	.95 (n=251)	.77 (n=105)
비주장성	1.35	.70	.93 (n=250)	.79 (n=100)
비판/의심	1.02	.62	.92 (n=249)	.81 (n= 99)
과배려	.97	.60	.84 (n=257)	.68 (n=107)
성적 회피	.86	.85	.74 (n=255)	.75 (n=106)
성마름/짜증	1.01	.84	.66 (n=255)	.63 (n=105)

인 척도임을 보여준다.

K-IIP 하위척도들의 알파계수는 대체로 .9를 넘는 수준이었다. 대인예민성은 .94, 비사교성은 .95, 비주장성은 .93, 비판/의심은 .92, 과배려는 .84로 나타났다. 성적회피 요인(.74), 성마름/짜증 요인(.66)은 문항수가 적은 관계로 내적 합치도가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대체로 본 연구의 하위척도들이 동질적인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106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10일 간격으로 하위척도들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실시한 결과, 신뢰도는 .61~.81사이로 나타났다.

Horowitz 등(1988)의 연구에서, 비주장성 요인의 내적 합치도 계수는 .93, 비사교성 요인은 .93, 과통제 요인은 .82 수준이었고, Barkham 등(1994)의 연구에서는 비주장성 요인은 .94, 비사교성 요인은 .93, 과배려 요인은 .81, 과공격성 요인은 .82 수준이었다. 이런 합치도 계수들은 본 연구의 유사 요인들의 계수와 비교적 비슷하였다.

K-IIP 하위척도들간의 상관계수를 구한 결과

.40~.72사이의 높은 상관이 있었다. 이러한 높은 상관은 K-IIP의 '일반적인 불편감(complaint) 요인'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Horowitz 등(1988)의 연구에서 하위 요인들간의 상관계수는 .13~.61의 범위에 있었고, Barkham 등(1994)의 연구에서는 -.15~.57의 범위에 있었다. 본 연구에서의 하위요인들간 상관이 다른 연구들보다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라 K-IIP 척도상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집단간 t검증을 실시하였다. K-IIP 전체점수에서는 남녀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258)=-1.32$). 전반적으로 대인관계 문제를 호소하는 정도에서는 남녀간의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위척도 수준에서는 대인예민성 척도($t(258)=-2.65$, $p<0.01$), 과배려 척도($t(258)=2.04$, $p<0.05$), 성적회피 척도($t(258)=-3.34$, $p<0.01$), 성마름/짜증 척도($t(258)=-2.43$, $p<0.5$)에서 남녀간 차이를 보였다. K-IIP에서,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대인예민성이 더 높고, 성적 회피가 더 높은 것은 예상할 수 있는 결

과이다.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더 높은 점수가 나온 것은 과배려 특성이었다. 이런 결과는 앞으로 반복검증될 필요가 있다. 그밖에 비사교성, 비주장성, 비판/의심 척도는 남녀간에 어떤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결과는 Barkham 등(1994)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3. K-IIP와 SCL-90-R의 상관관계

먼저, K-IIP 전체점수의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정신과적 증상을 측정하는 SCL-90-R과의 상관을 검토하였다. K-IIP 전체점수가 대인관계의 심각도를 의미하므로 SCL-90-R의 전체심도지수와 상관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 결과, K-IIP 전체점수와 SCL-90-R의 전체점수인 GSI간의 상관은 .73이었고, 설명변량은 53.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두 척도간의 상관이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은 선

행연구들과도 일치되는 결과이다. Horowitz 등(1988)의 연구에서는 둘간의 상관이 .64이었고, Barkham 등(1994)의 연구에서는 .58이었으며, 홍상환과 김영환(1999)의 연구에서는 .61로 나타났다. 표 3에는 K-IIP 척도점수와 SCL-90-R과의 상관계수가 제시되어있다.

K-IIP 전체점수와 SCL-90-R의 하위척도간의 상관패턴을 살펴보면, SCL-90-R의 하위척도 중에서 대인예민성 척도가 K-IIP 전체점수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런 결과는 Barkham 등(199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K-IIP 전체점수는 SCL-90-R의 하위척도중 대인예민성, 편집증, 우울 척도 순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을 보인 반면, 신체화, 공포불안 척도와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을 보였다. 이런 결과는 K-IIP 전체점수의 수렴 및 변별타당도를 지지하는 증거로 볼 수 있다.

Barkham 등(1994)의 연구에서는 IIP 전체점

표 3. K-IIP와 SCL-90-R 간의 상관계수

K-IIP SCL-90-R	전체 점수	대인 예민성	비 사교성	비 주장성	비판/ 의심	과배려	성적 회피	성마름 /짜증
신체화	.53**	.38**	.49**	.36**	.53**	.38**	.37**	.47**
강박증	.67**	.62**	.54**	.55**	.53**	.45**	.35**	.53**
대인예민성	.76**	.68**	.69**	.58**	.65**	.48**	.42**	.55**
우울	.67**	.62**	.60**	.51**	.55**	.44**	.39**	.61**
불안	.65**	.55**	.59**	.47**	.55**	.47**	.41**	.51**
적대감	.60**	.53**	.55**	.38**	.61**	.34**	.25**	.58**
공포불안	.58**	.38**	.55**	.41**	.49**	.48**	.38**	.44**
편집증	.69**	.58**	.61**	.45**	.66**	.45**	.39**	.52**
정신증	.67**	.54**	.56**	.51**	.57**	.55**	.43**	.54**
전체심도지수 (GSI)	.72**	.62**	.64**	.53**	.63**	.47**	.41**	.60**

* p < .05, ** p < .01.

수가 강박증, 편집증, 정신증 척도와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였으나, 신체화, 우울, 불안, 공포불안 척도와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을 보였다. 본 연구와 Barkham 등(1994)의 연구는 IIP 전체점수가 SCL-90-R의 대인예민성, 편집증 척도와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을 보인다는 점에서 일치된 결과를 보인 반면, 우울 척도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을, Barkham 등(1994)의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을 보인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였다. 우울 증상이 대인관계 상실과 관련이 있고 비사교성이나 내향성과 관련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울척도와 K-IIP 전체점수간의 높은 상관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K-IIP 하위척도들의 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서, 먼저 정신과적 증상을 측정하는 SCL-90-R과의 상관을 검토하였다. 두 검사의 각 하위척도들간의 상관은 .25~.77 사이로 정도의 차이는 있었으나 모두 유의미하게 높은 상관을 보였다.

K-IIP 하위척도들과 SCL-90-R의 하위척도들간의 상관패턴을 살펴보면, K-IIP의 대인예민성 척도는 SCL-90-R의 대인예민성 척도와 가장 상관이 높았고, 신체화 척도, 공포불안척도와 상대적으로 상관이 낮았다. K-IIP 비사교성 척도는 대인예민성 척도, 편집증 척도와 상관이 높았고, 신체화 척도와 상관이 낮았으며, K-IIP 비주장성 척도는 대인예민성 척도와 강박증 척도와 상대적으로 상관이 높은 반면, 신체화, 공포불안 척도와 상대적으로 상관이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K-IIP의 비판/의심 척도는 편집증 척도, 대인예민성 척도, 적대감 척도와 비교적 상관이 높았다. K-IIP 과배려 척도와 성적회피 척도는 전반적으로 SCL-90-R의 하위척도들과 비교적 상관이 낮은 편이었다. K-IIP의 성마름/짜증 요인은 우울 척도, 적대감 척도와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런 결과들은 K-IIP 하위척도들의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지지해주고 있다.

SCL-90-R의 하위척도들을 중심으로 보면, SCL-90-R의 대인예민성 척도는 K-IIP의 대인예민성 척도, 비사교성 척도, 비판/의심 척도와 전체적으로 높은 상관을 보였다. 또한 주목할만한 상관은 SCL-90-R의 적대감 척도가 K-IIP의 비판/의심척도, 성마름/짜증 척도와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였고, 성적회피 척도, 과배려 척도, 비주장성 척도와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K-IIP의 비판/의심 척도와 성마름/짜증 척도가 공격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Barkham 등(1994)의 연구에서 과공격성 척도가 SCL-90-R의 적대감 척도와 높은 상관을 보인 결과와 일치된다고 볼 수 있다.

4. K-IIP와 IAS의 상관관계

대인관계 특성을 측정하는 IAS 척도와 대인관계 문제행동을 측정하는 K-IIP를 비교함으로써, K-IIP 하위척도들의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살펴보고 하였다. 표 4는 K-IIP와 IAS간의 상관계수가 제시되어있다.

먼저, K-IIP 전체점수와 IAS 하위척도와의 상관을 살펴보면, IAS의 '고립된-내향적인' 척도와 '자신없는-순종적인' 척도와 각각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사교적인-외향적인' 척도와 '자신있는-지배적인' 척도와 각각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이는 내향적이고 고립되어있고, 자신 없고 순종적인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K-IIP에서 대인관계 문제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4. K-IIP와 IAS 척도간의 상관계수

IAS \ K-IIP	전체 점수	대인 예민성	비 사교성	비 주장성	비판/ 의심	과배려	성적 회피	성마름 /짜증
자신있는-지배적인	-.21**	-.13*	-.25**	-.45**	.08	-.19**	-.13*	-.12
거만한-계산적인	-.06	.01	-.11	-.29**	.17**	-.08	-.01	-.07
냉담한	.07	-.05	.23**	-.13*	.27**	-.09	.19**	.18**
고립된-내향적인	.38**	.20**	.61**	.34**	.33**	.19**	.21**	.35**
자신없는-순종적인	.23**	.14*	.21**	.39**	-.03	.18**	.04	-.04
겸손한-솔직한	.08	.05	.09	.21**	-.23**	.21**	.04	-.13*
따뜻한-친화적인	-.13	-.09	-.28**	-.03	-.23**	.08	-.23**	-.34**
사교적인-외향적인	-.25**	-.09	-.49**	-.30**	-.18**	-.10	-.13*	-.31**

* p < .05, ** p < .01.

K-IIP 하위척도 수준에서 살펴보면, K-IIP 비사교성 척도가 전반적으로 IAS 하위척도와 높은 상관을 보였다. ‘고립된-내향적인’ 척도, ‘냉담한’ 척도 및, ‘자신없는-순종적인’ 척도와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사교적인-외향적인’ 척도, ‘따뜻한-친화적인’ 척도 및 ‘자신있는-지배적인’ 척도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비사교성 척도가 고립성, 내향성, 냉담성, 자신감 결여, 순종성을 많이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K-IIP 비주장성 척도 또한 IAS 하위척도와 대체적으로 높은 상관을 보였다. ‘고립된-내향적인’ 척도와는 .34, ‘자신없는-순종적인’ 척도와는 .39, ‘겸손한-솔직한’ 척도와는 .21의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사교적인-외향적인’ 척도와는 -.30, ‘자신있는-지배적인’ 척도와는 -.49, ‘거만한-계산적인’ 척도와는 -.29의 상관을 보였다. K-IIP 비주장성 척도는 고립되고 내향적이고, 자신없고 순종적이며, 겸손하고 솔직한 성격특성과 상관이 높았다.

한편, K-IIP 비판/의심 척도는 ‘고립된-내향적인’ 척도, ‘냉담한’ 척도, ‘거만한-계산적인’ 척

도와는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겸손한-솔직한’ 척도, ‘사교적인-외향적인’ 척도, ‘따뜻한-친화적인’ 척도와 각각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 결과를 살펴보면, 비판/의심 척도가 고립성, 냉담성, 거만함과 높은 관련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수동공격적인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K-IIP 과배려 척도는 ‘고립된-내향적인’ 척도와는 .19, ‘겸손한-솔직한’ 척도와는 .21, ‘자신없는-순종적인’ 척도와는 .18의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자신있는-지배적인’ 척도와는 -.19의 상관을 보였다. K-IIP 성적 회피 척도는 ‘고립된-내향적인’ 척도와는 .21, ‘냉담한’ 척도와는 .19의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따뜻한-친화적인’ 척도와는 -.23의 상관을 보였다. K-IIP 성마름/짜증 척도는 ‘고립된-내향적인’ 척도와는 .35, ‘냉담한’ 척도와는 .18의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사교적인-외향적인’ 척도와는 -.31, ‘따뜻한-친화적인’ 척도와는 -.34의 상관을 보였다.

IAS 하위 척도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고립된-내향적인’ 척도와 ‘자신없는-순종적인’ 척도

가 K-IIP 하위척도들과 비교적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자신있는-지배적인' 척도, '사교적인-외향적인' 척도, '따뜻한-친화적인' 척도가 비교적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K-IIP의 하위척도들이 대인관계 특성 중에서 특히 고립되고 내향적인 특성과 자신없고 순종적인 특성과 관련이 높음을 보여준다.

5. K-IIP와 NEO-PI의 상관관계

마지막으로, NEO-PI와 비교를 통해 K-IIP 하위척도의 타당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NEO-PI 하위척도 중에서 지배와 친애 차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외향성과 친화성 척도와 K-IIP 하위척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표 5에는 K-IIP와 NEO-PI 간의 상관관계수가 제시되어있다.

먼저, 탐색적인 수준에서, 두 검사의 전체점수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높은 부적 상관을 보이고 있다. 이는 K-IIP가 대인관계 문제를 평가하는 반면, NEO-PI의 외향성, 친화성 척도는 긍정적인 인간관계 특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K-IIP 전체점수는 NEO-PI 외향성 차원의 온정성, 사교성, 주장성, 활동성, 긍정적 정서 척도와 친화성 차원의 신뢰성, 이타성 척도와 비교적 높은 부적 상관을

표 5. K-IIP와 NEO-PI간의 상관계수

K-IIP NEO-PI	전체 점수	대인 예민성	비 사교성	비 주장성	비판/ 의심	과배려	성적 회피	성마름 /짜증
외향성	-.32**	-.11	-.57**	-.40**	-.21**	-.12	-.19**	-.31**
온정성	-.35**	-.13	-.57**	-.29**	-.40**	-.07	-.20**	-.38**
사교성	-.24**	-.04	-.51**	-.21**	-.30**	-.03	-.13*	-.28**
주장성	-.27**	-.13*	-.41**	-.45**	-.04	-.13*	-.14*	-.14*
활동성	-.21**	-.10	-.34**	-.39**	-.06	-.18**	-.14*	-.20**
자극추구성	.02	.05	-.20**	-.09	.10	-.01	-.08	-.03
긍정적 정서	-.31**	-.18**	-.47**	-.29**	-.28**	-.13*	-.22**	-.35**
친화성	-.29**	-.21**	-.31**	-.05	-.54**	.14*	-.14*	-.39**
신뢰성	-.37**	-.23**	-.46**	-.23**	-.47**	.00	-.16*	-.37**
솔직성	-.12	-.21**	-.03	-.04	-.22**	.09	-.01*	-.14*
이타성	-.36**	-.19**	-.44**	-.17**	-.45**	-.05	-.30**	-.45**
순응성	-.02	-.04	-.03	.27**	-.34**	.22**	.17**	-.28**
겸손	-.07	-.12	.04	.04	-.26**	.02	.01	-.01
동정	-.10	.05	-.23**	-.06	-.21**	.15*	.15*	-.16*
전체 (외향성 + 친화성)	-.40**	-.20**	-.61**	-.33**	-.45**	-.01	-.22**	-.44**

* p < .05, ** p < .01.

보였다. 전반적인 대인관계 문제는 이런 특성들의 결핍과 관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두 검사의 하위 척도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K-IIP의 비사교성 척도, 비주장성 척도가 대부분의 NEO-PI 외향성 하위척도들과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고, 반면, K-IIP의 대인예민성 척도, 비판/의심 척도는 NEO-PI 친화성 척도와 비교적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K-IIP의 비사교성, 비주장성 척도는 지배 차원을 반영하며, K-IIP의 대인예민성 척도와 비판/의심척도는 친애 차원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K-IIP 비사교성 척도는 NEO-PI 온정성 척도, 사교성 척도, 주장성 척도와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고, K-IIP 비주장성 척도는 NEO-PI 주장성 척도, 활동성 척도와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K-IIP 비판/의심 척도는 NEO-PI의 신뢰성 척도, 이타성, 온정성 척도와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그밖에 K-IIP 대인예민성 척도는 신뢰성 척도, 솔직성 척도, 이타성 척도, 긍정적 정서 척도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K-IIP 과배려 척도는 순응성 척도와 정적 상관을 보인다 반면, 활동성 척도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K-IIP 성적 회피 척도는 이타성 척도, 긍정적 정서 척도, 온정성 척도와는 부적 상관을 보인다 반면, 순응성 척도와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K-IIP 성마름/짜증 척도는 이타성 척도, 신뢰성 척도, 온정성 척도, 긍정적 정서 척도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두 검사의 하위척도들은 높은 부적 상관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K-IIP를 통해 평가한 대인관계의 문제유형들이 대인관계 성격특성에 의해 잘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K-IIP 하위척도들의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지지해주는 결과이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판 대인관계 문제척도(K-IIP)를 개발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특히 상담 장면에서 대인관계 문제를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평가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많은 잠재적 요인을 찾아내는 방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7개의 하위요인을 발견하였다. 선행연구들에서 보고되었던 비사교성, 비주장성, 과배려 요인들이 반복해서 발견되었으며, 그외 다른 독특한 요인들이 발견되었다. 특히 성적회피 요인은 선행 연구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요인으로서, 동서양간의 문화적인 차이를 반영하는 대인관계 문제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대인관계에서 공격적 측면을 반영하는 비판/의심 요인과 성마름/짜증 요인이 구분되어 나타난 것도 새로운 특징이다. 이들 요인들은 선행 연구의 과공격성 요인과 유사하지만, 비판/의심 요인은 수동공격적인 측면을 주로 반영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었고, 성마름/짜증 요인은 너무 쉽게 화나 짜증을 내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 1요인으로 묶였던 대인예민성 요인의 경우, 다른 사람의 반응에 대한 지나친 염려, 지나친 의존, 인정욕구, 거절에 대한 예민성 등 여러 가지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 요인의 경우 추후 연구를 통해 반복검증될 필요가 있으며, 보다 하위요인들로 세분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새롭게 부각된 사실은, 한국에서 대인관계 문제들을 다룰 때에는 비주장성이나 비사교성과 같은 기존에 자주 부딪혔던 문제 이외에도 성적 회피, 수동공격성, 성마름과 같은 문제들을 비중있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인예민성, 비사교성, 비주장성, 비판/의심, 과배려 요인은 앞선 여러 IIP 요

인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되었던 안정적인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성적 회피, 성마름/짜증 요인 또한 적절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연구 및 이론적인 목적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다만, 그 문항수가 작으므로 앞으로 반복검증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K-IIP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K-IIP가 정신과적 증상을 측정하는 간이 정신진단검사 뿐만이 아니라 대인관계 성향을 평가하는 대인관계 형용사 척도 및 NEO-인성 검사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9개의 정신과적 증상을 평가하는 SCL-90-R과의 비교를 통해 K-IIP의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검토하였다. K-IIP 전체점수는 SCL-90-R의 전체점수인 전체심도지수와 높은 상관을 보인 한편, SCL-90-R의 하위척도 중에는 대인예민성 척도, 편집증 척도, 우울 척도와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을 보였고, 신체화 척도, 공포불안 척도와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하위척도간 상호상관의 수준에서, K-IIP 대인예민성 척도는 SCL-90-R의 대인예민성 척도와 상관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비판/의심 척도는 SCL-90-R의 편집증 척도, 적대감 척도와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인 반면, 대인관계 측면을 반영하지 않는 신체화, 공포불안 척도와는 상관이 낮게 나타났다. 성마름/짜증 척도는 우울 척도, 적대감 척도와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였다. 이런 결과들은 K-IIP 하위척도들의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제공해준다. 그리고 본 연구와 선행 연구들에서 SCL-90-R과 K-IIP 간에 매우 높은 상관이 나온 것은, 두 측정도구가 모두 강력한 '일반적 불편감' 요인을 반영하고 있음을 나타내준다.

다음으로, 대인관계 측면에서 타당도를 살펴 보기 위해, K-IIP와 IAS간을 비교하였다.

K-IIP 비사교성 척도는 '고립되고 내향적인', '냉담한' 및 '자신없고 순종적인' 특성과 관련되며, K-IIP 비주장성 척도는 '자신없고 순종적인', '고립되고 내향적인' 및 '겸손하고 솔직한' 특성과 관련되며, K-IIP 비판/의심 척도는 '고립되고 내향적인', '냉담한' 및 '거만하고 계산적인' 특성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판/의심 척도의 수동공격적인 특성을 나타내준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K-IIP의 하위척도들이 대인관계 성향으로 인한 대인관계 문제들을 잘 반영하는 검사라고 볼 수 있다.

K-IIP의 추가적인 타당도 증거를 얻기 위해, 대인관계 이론과는 다른 전통에서 발달된 NEO-PI와 관계를 살펴보았다. NEO-PI는 인간의 기본적인 성격특성을 발견하려는 전통에서 비롯된 5요인 모형을 반영하는 검사로서, 본 연구에서는 5가지 요인 중에서 외향성 요인과 친화성 요인을 평가하였다. 두 요인을 선택한 이유는 NEO-PI 외향성 요인과 친화성 요인이 대인관계 이론의 기본 차원인 지배 차원과 친애 차원과 관련된다는 선행 연구들(Trimpnell and Wiggins, 1990; McCrae and Costa, 1987)이 있으므로 그 수렴도를 보기 위해서이다.

지배 차원을 반영하는 외향성 하위척도들은 K-IIP의 비사교성, 비주장성 척도와 높은 부적 상관을 보인 반면, 친애 차원을 반영하는 친화성의 하위척도들은 K-IIP의 대인예민성, 비판/의심, 성적 회피 척도와 높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K-IIP 비사교성, 비주장성 척도가 순종성을 반영하며, 비판/의심 척도가 냉담하고 친화적이지 않은 특성을 반영한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K-IIP 하위척도들의 타당도를 지지하는 증거로 볼 수 있다.

하위척도 수준에서, K-IIP 비사교성 척도는 NEO-PI 사교성 척도와 부적으로 상관이 높았

고, K-IIP 비주장성 척도는 NEO-PI 주장성 척도와 또한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그리고 K-IIP 비판/의심 척도는 NEO-PI의 신뢰성 척도, 이타성 척도와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그밖에 K-IIP 대인예민성 척도는 신뢰성 척도와 부적 상관을 보였고, K-IIP 과배려 척도는 순응성 척도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K-IIP 하위 척도들의 타당도를 지지해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K-IIP의 유용성을 뒷받침해준다. K-IIP 전체점수 및 본 연구에서 구성한 하위척도들은 정신과적 증상 및 대인관계 성향을 평가하는 측정도구들과 수렴하는 측정치로서 적절한 타당도를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K-IIP는 비사교성, 비주장성 등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수동공격성, 성적 회피, 성마름 등의 여러 가지 대인관계 문제들을 두루 평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K-IIP는 대인관계 문제행동을 연구하는 분야 뿐만 아니라 실제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대인관계 문제는 내담자들이 심리치료를 받고자 호소하는 가장 흔한 문제임을 감안할 때, 이 척도는 상담 초기에 단시간에 내담자의 폭넓은 대인관계 문제를 세부적으로 평가해서 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치료기간에 걸친 변화를 측정하고, 치료적인 성과를 측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이며, 심리치료와 관련하여 내담자의 대인관계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Horowitz, 1979; Horowitz, de Sales French, & Anderson, 1982; Horowitz & Vikus, 1986). 특히 구체적인 대인관계 문제를 추적할 수 있고, 상이한 대인관계 문제의 진전정도를 비교할 수 있으며, 특정 심리증상과 대인관계 문제유형과의 관계를 연구하는데 기여할 수 있

을 것이다. 예를 들면 성격장애들이 체계적인 대인관계 문제패턴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Wiggins와 Pincus(1989)는 대인관계 성향들과 성격 장애의 관련성을 보여준 바 있다. 그리고 Horowitz 등(1988)이 IIP를 개발하면서 시사하였듯이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고통받을 때 그 원인이 대인관계에 있는 것인지, 그 밖의 다른 원인이 있는 것인지 구분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K-IIP의 요인구조는 Horowitz 등(1988)이나 Barkham 등(1994)이 제시했던 것과는 다소 다른 요인 구조를 보여주었다. 두 연구의 피험자 특성의 차이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배경의 차이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인관계 문제는 사회적으로 문제제시하는 유형이나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새로운 요인 구조들은 다른 표본에서 재검증될 필요가 있다. IIP를 이용한 국내의 두 연구에서 발견된 요인들이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다양한 표본을 대상으로 추가 연구를 통해 안정적인 K-IIP 요인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대학생들을 피험자로 사용하였으나, 심리치료를 받고 있거나 받고자 하는 내담자들과 함께 대학생 이외의 다른 표본에 대해서도 추가 연구를 함으로써 새로운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권석만, 김정욱 (인쇄중). **한국판 대인관계 행동사 척도의 개발**. 미발표논문.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간이정신진단 검사 실시요강**.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안창규, 이경임 (1997). **NEO 인성검사의 해석과 활용**. 부산대 대학원 교육학과.

- 홍상환, 김영환 (1999). 대인관계문제검사의 표준화연구(I). *한국임상심리학회 1999년도 하계 학술발표논문집*, 211-216.
- Alden, L. E., Wiggins, J. S., & Pincus, A. L. (1990). Construction of circumplex scales for the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5, 521-536.
- Barkham, M., Hardy, G. E., & Startup, M. (1994). The structure, validity and clinical relevance of the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67, 171-185.
- Benjamin, L. (1974). Structural analysis of social behavior. *Psychological Review*, 81, 392-425.
- Comrey, A. L. (1988). Factor-analytic methods of scale development in personality and clinical psycholog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754-761.
- Costa, P. T., Jr., & McCrae, R. R. (1992). Comparability of alternative measures of the five-factor model.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Society, San Diego, CA.
- Derogatis, L. R. (1983). *The SCL-90R: Administration, Scoring and Procedures-Manual II*. Towson, MD: Clinical Psychometric Research.
- Hirschfeld, R., Klerman, G., Gough, H., Barret, J., Korchin, S., & Chodoff, P. (1977). A measure of interpersonal dependenc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1, 610-618.
- Horowitz, L. M. (1979). On the cognitive structure of interpersonal problems treated in psycho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 5-15.
- Horowitz, L. M. (1996). The study of interpersonal problems: A Leary legac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6, 283-300.
- Horowitz, L. M., de Sales French, R., & Anderson, C. A. (1982). The prototype of a lonely person. In L. Peplau & D. Perlman(Ed.), *Loneliness: A sourcebook of current theory research and therapy*(pp. 183-205). New York: Wiley Interscience.
- Horowitz, L. M., Rosenberg, S. E., Baer, B. A., Ureño, G., & Villaseñor, V. S. (1988).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Psychometric properties and clinical applica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885-892.
- Horowitz, L. M., Vitkus, J. (1986). The interpersonal basis of psychiatric symptoms. *Clinical Psychology Review*, 90, 185-214.
- Kiesler, D. J. (1983). The 1982 interpersonal circle: A taxonomy for complementarity in human transactions. *Psychological Review*, 90, 185-214.
- Kim, Y., Pilkonis, P. A., & Barkham, M. (1997).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the personality disorder subscales from

- the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9, 284-296.
- Leary, T. F. (1957). *Interpersonal diagnosis of personality*. New York: Ronald.
- Lorr, M., & McNair, D. M. (1963). An interpersonal behavior circl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7, 68-75.
- McCrae, R. R., & Costa, P. T., Jr. (1989). The structure of interpersonal traits: Wiggins' circumplex and the five-factor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586-595.
- Pilkonis, P. A., Kim, Y., Proietti, J. M., & Barkham, M. (1996). Scales for personality disorders developed from the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 10, 355-369.
- Rathus, S. (1973). A 30-item schedule for assessing assertive behavior. *Behavior Therapy*, 4, 398-406.
- Russel, D., Peplau, L., & Cutrona, D. (1980). The revised UCLA Loneliness Scale: Concurr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evid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472-480.
- Schafer, E. S., & Plutchik, R. (1966). Interrelationships of emotions, traits, and diagnostic constructs. *Psychological Reports*, 18, 399-410.
- Tinsley, H. E. A. & Tinsley, D. J. (1987). Uses of factor analysis in counseling psychology resear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4, 414-424.
- Trapnell, P. D., & Wiggins, J. S. (1990). Extension of the Interpersonal Adjective Scales to include the Big Five dimensions of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781-790.
- Wiggins, J. S. (1994). *Interpersonal Adjective Scales: Professional manua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Inc.
- Wiggins, J. S. (1979). A psychological taxonomy of trait-descriptive terms: The interpersonal domai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3, 409-420.
- Wiggins, J. S., & Pincus, A. L. (1989). Conceptions of personality disorders and dimensions of personality. *Psychological Assessment: A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1, 305-316.
- Wiggins, J. S., Trapnell, P. & Phillips, N. (1988). Psychometric and geometric characteristics of the revised Interpersonal Adjective Scales(IAS-R).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23, 517-530.

Development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K-IIP): Its Psychometric Characteristics and Factor Structure

Jeong-Wook Kim Seok-Man Kwon Nam-Woon Chu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is to develop a Korean version of the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IIP; Horowitz et. al. 1988) for measuring interpersonal problems which are main complaints of clients in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The IIP were translated into Korean and administered to 259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version of IIP(K-IIP) showed high level of internal consistency and temporal stability. Factor analysis on the K-IIP indicated that 7 factor structure is most meaningful. The validity of the K-IIP was found to be satisfactory in that its total score and factor score wer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score of SCL-90-R, Interpersonal Adjective Scales, and NEO-Personality Inventory. In addition,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and practical use of the K-IIP were discussed.

부록 · 대인관계 문제 척도

아래에는 사람들이 대인관계에서 흔히 경험하는 문제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항목을 읽고, 각 항목에 제시된 문제가 귀하의 삶에서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경험한 문제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문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의 정도를 나타내는 숫자에 ○표를 하십시오.

옳고 그른 대답은 없으니, 모든 문항에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에게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경우에는 '만약 그런 상황에 처할 경우'를 가정하시고 응답하면 됩니다.)

<보 기>

귀하는 이 문제로 인해 얼마나 어려움을 겪으십니까?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웬만큼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아주 그렇다
	0	1	2	3	4
00. 친척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어렵다.	0	1	2	3	4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웬만큼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아주 그렇다
1.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이 어렵다.....	0	1	2	3	4
2. 다른 사람에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다.....	0	1	2	3	4
3. 여러 사람이 모인 집단에 같이 어울리기가 어렵다.....	0	1	2	3	4
4. 어떤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나만 알고 있기가 어렵다.....	0	1	2	3	4
5.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가 어렵다.....	0	1	2	3	4
6. 나를 귀찮게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다.....	0	1	2	3	4
7. 처음 본 사람에게 나 자신을 소개하기가 어렵다	0	1	2	3	4
8.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을 사람들에게 따지기가 어렵다.....	0	1	2	3	4
9. 다른 사람 앞에서 내 주장을 하기가 어렵다.....	0	1	2	3	4
10. 친구를 사귀기가 어렵다.....	0	1	2	3	4
11. 다른 사람을 칭찬하기가 어렵다.....	0	1	2	3	4
12.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의지하도록 허용하기가 어렵다.....	0	1	2	3	4
13. 다른 사람과 다른 의견을 지니기가 어렵다.....	0	1	2	3	4
14. 내가 어떨 때 화가 나는지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어렵다.....	0	1	2	3	4
15. 다른 사람과 오랜 기간 동안 깊게 사귀기가 어렵다.....	0	1	2	3	4
16. 다른 사람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내 관점을 고수하기가 어렵다.....	0	1	2	3	4
17. 다른 사람의 뒷사람 역할을 하는 것이 어렵다.....	0	1	2	3	4
18.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가 어렵다.....	0	1	2	3	4
19. 내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과 잘 지내기가 어렵다..	0	1	2	3	4
20. 싸울만한 상황임에도 다른 사람과 싸우기가 어렵다.....	0	1	2	3	4
21.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것이 어렵다.....	0	1	2	3	4
22. 합리적인 것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기가 어렵다.....	0	1	2	3	4
23. 다른 사람들과 교체하기가 어렵다.....	0	1	2	3	4
24. 사귀고 싶지 않은 사람과 관계를 끊기가 어렵다.....	0	1	2	3	4
25.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 일에 책임을 지기가 어렵다.....	0	1	2	3	4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웬만큼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아주 그렇다
26. 사람들에게 좋아하는 마음을 드러내기가 어렵다.....	0	1	2	3	4
27.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편안하게 느끼기가 어렵다.....	0	1	2	3	4
28. 사람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기가 어렵다.....	0	1	2	3	4
29.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0	1	2	3	4
30. 다른 사람들에게 내 개인적인 것들을 말하기가 어렵다.....	0	1	2	3	4
31. 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믿기가 어렵다.....	0	1	2	3	4
32. 다른 사람들에게 내 감정을 직접 표현하기가 어렵다.....	0	1	2	3	4
33. 확고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필요한 때에도 그렇게 하기 어렵다.....	0	1	2	3	4
34.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느낌'을 경험하기가 어렵다.....	0	1	2	3	4
35. 경쟁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기 어렵다.....	0	1	2	3	4
36.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한계를 정해주기가 어렵다.....	0	1	2	3	4
37. 사람들에게 정직해지기가 어렵다.....	0	1	2	3	4
38. 다른 사람의 인생의 목표를 지지해줄기가 어렵다.....	0	1	2	3	4
39. 다른 사람과 가깝다고 느끼기가 어렵다.....	0	1	2	3	4
40.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어렵다.....	0	1	2	3	4
41. 다른 사람과 논쟁하는 것이 어렵다.....	0	1	2	3	4
42. 다른 사람과 다닐 때 편안하게 즐기는 것이 어렵다.....	0	1	2	3	4
43.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수하다고 느끼기가 어렵다.....	0	1	2	3	4
44. 정말 좋아하는 이성이라도 성적인 감정을 느끼기가 어렵다.....	0	1	2	3	4
45. '나는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느끼기가 어렵다.....	0	1	2	3	4
46. 내 편에서 우정을 지속시켜 나가기가 어렵다.....	0	1	2	3	4
47. 혼자 시간을 보내기가 어렵다.....	0	1	2	3	4
48.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주기가 어렵다.....	0	1	2	3	4
49. 같은 사람에게 사랑하는 감정과 화나는 감정을 동시에 느끼기가 어렵다.....	0	1	2	3	4
50.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는 업무상 관계를 지속하기가 어렵다.....	0	1	2	3	4
51. 다른 사람의 조언 없이 스스로 목표를 정하기가 어렵다.....	0	1	2	3	4
52.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영향력과 권위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0	1	2	3	4
53. 이기는 것에 대해 기분 좋게 느끼기가 어렵다.....	0	1	2	3	4
54. 다른 사람의 비판을 무시하기가 어렵다.....	0	1	2	3	4
55. 다른 사람과 어울리면 내 자신이 독립된 한 인간이라는 느낌을 가지기가 어렵다.....	0	1	2	3	4
56.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공하는 것에 대해 마음 편안하게 생각하기가 어렵다.....	0	1	2	3	4
57. 부모 역할에 대해 자신감있게 느끼거나 행동하기 어렵다.....	0	1	2	3	4
58.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화나는 감정을 느끼기가 어렵다.....	0	1	2	3	4
59. 그럴만한 상황에서도 성적인 반응을 보이기가 어렵다.....	0	1	2	3	4
60.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0	1	2	3	4
61.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나의 필요보다 우선시 하기 어렵다.....	0	1	2	3	4
62. 다른 사람이 잘한 일을 인정해 주기가 어렵다.....	0	1	2	3	4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보통 이다	상당히 그렇다	아주 그렇다
63. 다른 사람의 일을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기가 어렵다.....	0	1	2	3	4
64. 내게 영향력을 지닌 윗사람의 지시를 따르기가 어렵다.....	0	1	2	3	4
65. 다른 사람의 행복에 대해 기분 좋게 느끼기가 어렵다.....	0	1	2	3	4
66.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끝났을 때 상실감을 극복하기가 어렵다.....	0	1	2	3	4
67. 다른 사람에게 함께 어울리자고 요청하기가 어렵다.....	0	1	2	3	4
68. 다른 사람들에게 화나는 감정을 느끼기가 어렵다.....	0	1	2	3	4
69. 건설적인 내용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기가 어렵다.....	0	1	2	3	4
70. 성적인 만족감을 경험하기가 어렵다.....	0	1	2	3	4
71. 내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다.....	0	1	2	3	4
72. 화가 난 다음에는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어렵다.....	0	1	2	3	4
73.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는 나 자신의 행복에 관심을 기울이기가 어렵다.....	0	1	2	3	4
74.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고 내 주장을 하기가 어렵다.....	0	1	2	3	4
75. 함정에 빠진 듯한 느낌없이 다른 사람과 가까워지기가 어렵다.....	0	1	2	3	4
76.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기가 어렵다.....	0	1	2	3	4
77. 다른 사람을 배신한 듯한 느낌없이 어떤 사람과 가까워지기가 어렵다.....	0	1	2	3	4
78.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자신감을 느끼기가 어렵다.....	0	1	2	3	4
79. 나는 다른 사람들과 너무 많이 다룬다.....	0	1	2	3	4
80. 비판에 대해 지나치게 예민하다.....	0	1	2	3	4
81.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너무 많이 느낀다.	0	1	2	3	4
82. 너무 쉽게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난다.....	0	1	2	3	4
83.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설득당한다.....	0	1	2	3	4
84.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인정해주기를 지나치게 원한다.....	0	1	2	3	4
85. 어린 아이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 많다.....	0	1	2	3	4
86. 다른 사람에게 너무 의지한다.....	0	1	2	3	4
87. 거절당하는 것에 대해 너무 예민하다.....	0	1	2	3	4
88.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너무 많이 공개한다.....	0	1	2	3	4
89. 너무 독립적이다.....	0	1	2	3	4
90.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공격적이다.....	0	1	2	3	4
91.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려고 애를 너무 많이 쓴다.....	0	1	2	3	4
92.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격받는다느 느낌을 자주 느낀다.....	0	1	2	3	4
93. 내가 한 행동에 대해 지나치게 죄책감을 느낀다.....	0	1	2	3	4
94. 다른 사람을 웃기기 위한 행동을 너무 많이 한다.....	0	1	2	3	4
95.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목받고 싶은 마음이 지나치게 많다.....	0	1	2	3	4
96.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비판한다.....	0	1	2	3	4
97.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믿는다.....	0	1	2	3	4

전혀
아니다

약간
그렇다

웬만큼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아주
그렇다

98.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지나치게 통제하려고 한다.....	0	1	2	3	4
99.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피한다.....	0	1	2	3	4
100. 다른 사람의 기분에 너무 많이 영향을 받는다.....	0	1	2	3	4
101.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내 자신의 필요보다 지나치게 앞세운다.....	0	1	2	3	4
102. 다른 사람을 지나치게 변화시키려고 한다.....	0	1	2	3	4
103. 너무 잘 속는다.....	0	1	2	3	4
104. 다른 사람에게 너무 관대하다.....	0	1	2	3	4
105. 다른 사람을 너무 두려워 한다.....	0	1	2	3	4
106.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반응이 어떤지 너무 많이 염려한다.....	0	1	2	3	4
107. 다른 사람을 너무 의심한다.....	0	1	2	3	4
108.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에 의해 너무 많이 영향을 받는다.....	0	1	2	3	4
109. 다른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을 너무 많이 한다.....	0	1	2	3	4
110. 다른 사람을 실망시킬까봐 너무 많이 걱정한다.....	0	1	2	3	4
111.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지나치게 조종한다.....	0	1	2	3	4
112. 너무 쉽게 흥분하며 화를 낸다.....	0	1	2	3	4
113. 내 개인적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너무 많이 이야기한다.....	0	1	2	3	4
114.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일으켰다고 나 자신을 너무 많이 자책한다.....	0	1	2	3	4
115.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요구를 해오면 성가신 마음이 너무 쉽게 생긴다.	0	1	2	3	4
116. 다른 사람들과 지나치게 논쟁을 벌인다.....	0	1	2	3	4
117. 다른 사람들에 대해 너무 시기와 질투가 많다.....	0	1	2	3	4
118. 다른 사람들과 지나치게 거리를 둔다.....	0	1	2	3	4
119. 나에 대한 가족들의 반응에 대해 지나치게 걱정한다.....	0	1	2	3	4
120.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게 내버려 두는 일이 너무 많다.....	0	1	2	3	4
121. 강한 성격의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너무 쉽게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어 버린다.....	0	1	2	3	4
122.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을 때는 지나치게 죄책감을 느낀다.....	0	1	2	3	4
123. 그럴만한 상황이 아닌 때에도 경쟁심을 느낀다.....	0	1	2	3	4
124. 다른 사람 앞에서 당혹감을 느끼는 때가 너무 많다.....	0	1	2	3	4
125. 다른 사람과 가까와질 때 지나치게 불안하다.....	0	1	2	3	4
126. 다른 사람의 불행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는다.....	0	1	2	3	4
127. 사람들에게 양갈음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다.....	0	1	2	3	4